■ 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87-324.
http://doi.org/10.17948/kcs.2022..94.287

선조대 조선의 對여진 征討와 그 실상
—李廷龜의 箚子·獻議를 중심으로—

장정수(張禎洙)*

목 차

1. 머리말
2. 선조대 대여진 征討의 특징과 양상
3. 로툰 부락 정토에 대한 논의와 이정구의 회의론
4. 풍계 부락 정토에 대한 논의와 이정구의 반대론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선조대 對女眞 정책의 하나인 征討의 성격을 고찰한 것이다. 정토는 군사력을 동원한 강경책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藩籬를 복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번리는 조선의 육진 인근에 거주하던 藩胡 부락들로 구성된 '울타리'를 의미했는데, 그 외연의 深處胡를 방어한다는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번호는 16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17세기 초 대부분 建州女眞에 귀속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선조대인 16세기 말에 집중된 정토는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를 꾀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선조대 말 번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토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을 다룬다. 특히 李廷龜가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반대론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시행의 당위와 실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대여진 정책이 後金·淸에 대한 외교정책으로 전환되는 연결고리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주제어: 李廷龜, 征討, 藩胡, 城底野人, 深處胡, 로툰[老土], 훌룬[忽剌溫], 豊界部落.

1. 머리말

선조대는 조선의 對여진 정책상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였다. 건주여진의 누르하치는 백두산 인근의 여진세력을 흡수하고 조선과의 공식적인 관계 수립을 요구하였다. 六鎭의 藩胡들도 훌룬[Hūlun, 忽剌溫]의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 점차 조선의 영향력에서 이탈하는 형세였다. 건주여진과 훌룬이 경쟁적으로 두만강 유역에 진출하여 '藩籬'가 붕괴되자, 조선은 이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여진 정책을 모색했다. 조선과 건주여진・훌룬의 관계는 번호를 대하던 방식을 원용한 '번호규례'에 입각해서 조정되었다.[1] 번호규례는 건주여진이 훌룬을 병합(1613)한 뒤에도 지속되었고, 후금의 건국(1616) 이후까지도 한동안 이어졌다. 조・금관계가 조・청관계의 전신이었음을 고려하면, 선조대 대여진 정책의 변화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조대의 대여진 관계는 비교적 생소한 분야였다. 조선전기와 후기로 구분된 대외관계 연구에서 주로 전자의 관점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선조대 대여진 관계에 관해서는 서병국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지만[2] 이후 조선과 후금・청의 관계로 이어지는 연속성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 다른 흐름으로는 선조대를 '명・청교체'의 과도기로 다룬 연구들이 있다. 주로 광해군-인조대 한중관계사를 다룬 일련의 성과를 통해 이 분야의 연구는 크게 진전되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 대여진 관계는 간략히 다루어졌

1) 17세기 초 조선이 훌룬・건주여진과 교섭하면서 번호들에게 직첩・녹봉을 지급하던 전례를 활용한 것을 의미한다. 조선은 이를 통해서 이들과의 관계가 羈縻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장하였다. 번호규례에 관해서는 張禎洙, 「17세기 초 朝鮮의 이원적 對女眞 교섭과 '藩胡規例'」, 『明淸史硏究』 54, 明淸史學會, 2020 참조.

2) 徐炳國, 『宣祖時代 女直交涉史硏究』, 敎文社, 1970 ; 「朝鮮前期 對女眞關係史」, 『國史館論叢』 14, 國史編纂委員會, 1990.

3) 최호균, 「朝鮮中期 對女眞關係의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5 ;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혜안, 1999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7.

고, 선조대는 壬辰倭亂 및 건주여진의 흥기 부분이 강조되는 등 명·청교체의 前史로 서술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최근 선조대의 대여진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조선전기 五鎭에 거주한 번호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오갈암 전투(1607)까지 다룬 연구가 있었고[4] 누르하치·부잔타이에 의해 번호들이 침탈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5] 선조대 건주여진과의 배후교섭, 임진왜란기 번호와의 갈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廢四郡 및 백두산 일원에 거주한 溫河衛와의 관계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졌다.[6] 이 연구들은 새로운 자료 및 구체적인 논증을 통해서 대여진 관계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조선전기의 대여진 관계가 붕괴되어 후금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조대 말 조선이 건주여진·훌룬의 번호 침탈에 관한 사안을 보고하여 明이 개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거나 이 두 세력과 이원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연구가 제출된 정도이다.[7] 또 번호를 중심으로 한 선조대의 대여진 관계가 종언을 고하는 지점을 과도하게 강조한 반면, 이를 유지 혹은 회복시키기 위

4) 김순남, 「조선전기 5진 藩胡 동향의 추이」, 『역사와 실학』 46, 역사실학회, 2011.

5) 대표적인 연구로 박정민,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진출과 조선의 藩胡 상실」, 『인문과학연구』 43,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 Adam Bohnet, Debating Tumen Valley Jurchens during the Late Sixteenth and Early Seventeenth Centuries, *Korean Studies* Vol.39,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5 ; 한성주, 「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번호 침탈과 조선의 대응 고찰」, 『만주연구』 22, 만주학회, 2016a ; 한성주, 「조선 선조대 후반 忽剌溫 부잔타이[布占泰]의 침입 양상」, 『역사와 경계』 100, 부산경남사학회, 2016b 등을 꼽을 수 있다.

6) 한성주, 「임진왜란 전후 女眞 藩胡의 朝鮮 침구 양상과 조선의 대응 분석」, 『東洋史學研究』 132, 東洋史學會, 2015 ; 金世容, 「宣祖朝 泥湯介亂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 박정민, 「조선 중기 武將 최호의 북방 활동」, 『白山學報』 105, 白山學會, 2016 ; 장정수, 「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一의 역할」, 『韓國人物史研究』 25, 한국인물사연구소, 2016a ; 장정수, 「선조대 말 여진 번호 로툰(老土)의 건주여진 귀부와 조선의 대응」, 『朝鮮時代史學報』 78, 朝鮮時代史學會, 2016b ; 박정민, 「임진왜란 이전 온하위의 거주지 검토」, 『역사와 현실』 109, 한국역사연구회, 2018 ; 이재경, 「명종-선조대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조선」, 『한국문화』 8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7) 張禎洙, 「宣祖代 末 朝鮮의 對明 '虜情' 보고와 그 여파」, 『明淸史研究』 51, 明淸史學會, 2019 ; 張禎洙, 앞의 글, 2020.

한 조선의 치열한 노력에 관해서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특히 여진에 대한 征討가 가장 빈번했으면서도 동시에 회의적인 시선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은 거의 언급된 바 없다.[8] 선조대의 대여진 관계는 향후 후금・청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연속적인 구도 안에 있었지만, 그보다는 후금의 건국을 기점으로 '명을 대신한 청'과의 관계로 파악하는 경우가 여전히 주류를 점하고 있다.[9] 이러한 연구 경향은 후금의 건국 이전 조선과 여진의 복잡한 관계를 인과적으로 다루지 못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조대 대여진 관계는 다방면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고, 이로써 조선과 후금・청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선조대 빈도 높게 시행된 정토의 특징과 그에 대한 회의론을 검토한 것이다. 빈번한 정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치열한 회의론이 함께 전개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정토는 건주여진・훌룬의 압박에 의해 약화되던 번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이자, 동시에 그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원인이기도 했던 것이다. 번호로 구성된 번리의 붕괴는 조선이 그동안 深處胡로 치부하던 건주여진・훌룬과 직접 교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고, 이는 명의 '禁法'에 저촉되는 행위로써 중대한 외교적 변화를 암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조대 정토의 양상과 반대론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문은 3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선조대 정토의 특징과 양상을 개관하여 그것이 번호에 대한 무력의 수단이면서 실제로는 심처호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3장과 4장은 정토에 대한 회의론을 다룬 것으로 이정구가 올린 箚子와 獻議를 중심 텍스트로 삼

8) 이 시기 대여진 정책에서 공세적 군사전략이 사라지면서, 守城 중심의 방어전략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강조한 연구에서 정토의 실효성에 대한 당시의 회의적 시각을 일부 소개한 바 있다(장정수, 「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67, 朝鮮時代史學會, 2013, 178-181면).

9) 조선과 후금・청 관계의 수립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들도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Wang, Yuanchong, Claiming Centrality in the Chinese World: Manchu-Chosŏn Relations and the Making of the Qing's "Zhongguo" Identity 1616-43, *The Chinese Historical Review* vol.22, no.2, 2015; 鈴木開, 『明清交替と朝鮮外交』, 刀水書房, 2021).

았다. 그러면서도 이정구 개인의 의견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시 조선 조정에서 전개되던 정토에 관한 필요성과 신중론이 착종된 미묘한 흐름, 당위라는 면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면서도 실효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했다. 3장에서 다룰 이정구의 차자는 정토에 대한 논의를 신중론으로 흐르도록 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4장에서 다룰 이정구의 헌의는 정토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것이었다. 일목요연하게 정토의 문제점을 제시한 그의 의견들은 당시 조선 군신 간에 전개되던 논의의 핵심을 집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조대 정토의 시행과 실상을 검토함으로써, 번호들이 건주여진・훌룬의 구심력에 끌려들어가는 상황에 조선이 어떻게 대처하고자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조대 대여진 征討의 특징과 양상

征討는 신하의 반역을 토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征伐'과는 구분된다. 정벌은 통치영역의 외연에 존재한 세력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명분을 갖추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다.[10] 하지만 실제 용례 상 정토・정벌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여진'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이합집산을 거듭했으므로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개념도 같을 수 없었다.[11] 여진인에 대해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을 자부하는 관념은 현실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했다. 조선의 관직을 받은 受職女眞人을 조선의 '관료', 그들의 영역을 조선의 '영토'라고 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12]

---

10) 征討와 征伐의 개념은『資治通鑑綱目』및『國朝征討錄』의 범례에 제시되어 있다(장정수, 앞의 글, 2013, 175면 각주11).

11) 이 시기 여진인의 존재 양태와 조선과 명의 수직제도에 대해서는 한성주,『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참조.

12) 이 무렵, 崔岦은 征討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내실을 기하자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賊胡는 본래 일종의 야수에 지나지 않아서, 父子의 의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니 君臣 관계를 거론하여 책망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를 사모한다고 일컫더라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臣屬한 것이 아닙니다." 崔岦,『簡易集』卷1, 陳言, 北邊攻守議 通政以上各獻, "賊胡本一種野獸耳. 且不知有父子 則君臣非所責. 雖其有所求賴於我 稱爲嚮國 實非我臣

15-16세기 조선의 대여진 정책이 언제나 고정 값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15세기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여진정벌이 대내외적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시행된 것이라면, 16세기에는 이러한 공세적 행동이 약화된 군사력과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기획 단계에 머무는 추세였다.[13] 선조대의 정토는 배반한 藩胡를 問罪한다는 명분하에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아울러 연산군대 이후 회유책에 방점을 두고 시행된 '待夷之道'의 강조가 병행되었던 점이나, 공세적 작전이라도 궁극적으로는 藩籬를 복원하여 그것을 深處胡에 대한 방비책으로 삼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것도 특징이다.[14] 선조대의 정토는 명종대 藩胡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배반한 세력을 번리의 파손 부위로 보고, 해당 부위를 제거한 뒤 다시 수리하는 개념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정토·정벌의 개념 구분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선조대에 국한하면 그 성격이 꽤 선명했다. 번호와의 군사적 공조를 심처호에 대한 공동의 방어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던 것이다. 선조대에 이르러 건주여진·훌룬 등 심처호의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그것이 관념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심처호에 대한 첩보의 제공이 주를 이루었지만, 건주여진 등의 세력이 굴기하게 되자 번호의 '順·逆'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들의 협력 여하에 따라 변경은 튼튼해질 수도 있었고, 혹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屬." 여진인들에게 順·逆을 들어 바로잡아 주는 것은 허구적인 행위이므로 정토를 시행하는 대신 수비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13) 이규철, 「세조대 모련위 정벌의 의미와 대명인식」, 『韓國史硏究』 158, 韓國史硏究會, 2012 ; 이규철, 「연산군 대 대외정벌 추진 과정을 통해서 본 외교 역량의 약화」, 『역사와 담론』 92, 호서사학회, 2019.

14) 번호는 조선의 변경 근처에 거주한 城底野人의 다른 표현이면서도 주로 六鎭(혹은 五鎭) 인근에 거주하던 세력을 일컬었다. 한성주에 따르면 명종대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으로 이들과 함께 심처호의 침입에 대비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조선이 城底野人을 藩籬로 인식했고, '번리'가 부락을 이루면서 번호부락이 형성되었다고 한다(한성주, 앞의 책, 2011, 194-197면).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만, 번리·藩屛·藩翰 등이 관념적 수사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저야인·번호는 특정 세력 내지 부락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번리 등은 통시적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공간적으로는 조선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이로써 직·간접적 관계를 맺게 된 여진 세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한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선조대의 정토는 '니탕개의 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15] 1583년 慶源의 속진인 阿山堡 인근에 거주하던 번호 迂乙知(于乙其乃)가 배반하여 경원부를 함락하면서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된 사건이다. '니탕개의 난'은 심처호와 연계되고 또 번호들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다.[16] 이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국왕 선조였다. 선조는 번호의 대대적인 이반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大臣들에게 전교하였다.

> 胡人들을 六藩(六鎭을 이른다-필자)의 藩籬로 삼은 것이 비록 원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겨드랑 밑에 근심거리를 기른 것으로 오늘날 이러한 변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그러나 육진은 번호들이 屛蔽로 구실하는 데 의뢰하지 않고서는 역시 지키기가 어려운 곳이어서 기왕 우리나라에 납관하고 백년에 걸쳐 編戶가 된 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루만져 왔었다. 저들이 은덕을 배신하고 스스로 천토를 재촉하여 우리의 城邑을 짓밟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하였으니 죄악이 찰대로 찬 것이다. (…) 만일 우리가 偏師를 동원하여 그들의 죄를 성토하고 응징하여 소굴을 소탕해 버린다면 여러 오랑캐들이 듣고서 저희끼리 말하기를 '반역하고 거칠게 굴면 이로울 것이 없다.' 면서 반역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 이후 다시 온순한 오랑캐를 골라 藩屛으로 삼고 출입의 계한을 엄히 하여 은혜와 위엄으로 어루만져주는 것이 틀림없이 좋은 방책일 것이다.[17]

인용문에서는 정토에 대한 선조의 의지를 간취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에서, 방어와 추격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군대를 동원하여 근거지를 공격하라

---

15) 이보다 앞서 명종대에는 伊應巨島의 설치와 관련한 여진과의 분쟁으로 草串을 정토한 일이 있었지만, 이는 조선이 새로이 設鎭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배반한 번호를 제거한다는 개념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한성주, 「조선 명종대 豆滿江 以北지역에 대한 '鎭' 설치 시도: 伊應巨島의 子母鎭 설치와 女眞과의 분쟁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硏究』 41, 韓日關係史學會, 2012).

16) 『宣祖修正實錄』 卷17, 宣祖 16年 2月 甲申(1日).

17) 『宣祖實錄』 卷17, 宣祖 16年 2月 癸巳(10日), "六藩以胡人 作爲藩籬 雖曰其慮遠矣 養成肘腋之患 今日之有此變固也 (…) 然六鎭非藩胡之屛蔽 則亦難爲守 而其向國納款百年編戶者 則當仍而撫之矣 彼乃背恩忘德 自速天討 憑陵我城邑 殺擄我人民 惡貫罪盈 (…) 若聊命偏師 聲罪薄伐 蕩平其巢穴 則諸胡聞之 又將曰 叛逆梗化者 果何益也 潛消逆萌 叩關效順之不暇矣 夫然後 徐擇其胡人之效順者 更爲藩屛 嚴其出入之限 撫之以恩威 未必非良算也"

는 뜻을 읽을 수 있고 볼드체로 강조한 대목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울타리를 수선하는 개념임이 드러난다. 또 선조는 신중론을 의식했는지, 배반한 자를 용서하고서도 잘 다스릴 수는 없다면서 이것이 무고한 군사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비변사는 선조의 의사에 동의하면서도 병력과 물자를 점검한 뒤에 天討를 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며칠 뒤 북병사 李濟臣은 군대를 동원하여 여러 장수들과 함께 대대적인 정토를 가했다. 조선군은 세 갈래로 강을 건너 여러 번호 부락을 소탕하고 돌아왔다.[18] 이전에도 번호 부락을 공격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부분 적의 공격을 격퇴한 뒤 추격한 경우였다. 그에 반해 이제신은 군대를 정돈하여 강을 건너가 여러 부락을 소탕했다. 150급 혹은 300급으로 기록에 따라 획득한 수급의 수는 편차가 크지만, 상당한 전과였다고 할 수 있다. 선조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신의 독자적인 준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극적인 군사행동이 선조의 의사에 부합한 것은 틀림없다.

이제신의 정토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위세를 떨쳤지만, 오히려 각 진의 번호들이 결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廣取武擧, 군량 운반 및 屯田 경영, 서얼허통 및 공사천 활용 등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조처들이 연이어 시행된 것은 공방전이 지속되었음을 방증한다.[19] 한동안 조선은 번호들의 파상공세로 인해 守城에 집중해야 했고, 간혹 적을 추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해를 넘긴 1584년 1월 선조는 다시 정토를 지시했다.

> 지금은 강의 얼음이 녹고 있어서 거사하기 어려운 형세지만, 이제부터 征討에 쓰이는 도구를 준비하라. 오는 가을과 겨울 사이 4~5운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오랑캐 소굴 이남의 藩胡들 가운데 저들을 따르는 자들을 남김없이 소탕하여 一怒의 위엄을 보이라. 또 栗胡의 굴혈은 그 거리가 멀지 않고 니탕개와 비교하여 약한 편인데 병법에 '마땅히 약한 것을 먼저 공격하라.' 하였으니, 먼저 율호의 부락을 쳐서 니탕개의 세력을 고립시키라.[20]

---

18) 『宣祖實錄』 卷17, 宣祖 16年 2月 辛亥(28日); 『宣祖修正實錄』 卷17, 宣祖 16年 2月 甲申(1日).
19) 이 같은 제반조치에 대해서는 金世容, 앞의 글, 2016 참조.
20) 『宣祖實錄』 卷18, 宣祖 17年 1月 壬辰(14日), "今已江水將解 勢難擧事 自今措置征討之具 來秋冬間 大發兵四五運 自賊巢以南藩胡之從逆者 無遺蕩滅 以示一怒之威 至如栗胡窟穴 則其距不遠 而比尼胡爲弱 兵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선조는 매우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정토를 지시했다. 선조가 정토를 지시한 데도 이유가 있었다. 번호의 배반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添防을 위해 각 도에서 계속 병력을 동원하고, 군량을 운반하느라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었다. 鹿屯島의 둔전을 일구게 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신속하게 사태를 진정시켜야만 변경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정토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선조는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이듬해인 1585년 4월의 경연에서 다시 한 번 정토를 제안했다. 이때 정언신은 백성들의 안집도 어려운 상황이라 선뜻 군사를 일으킬 수 없고 또 정토시 잔인한 학살이 이루어지는 폐단도 아울러 개진했다.[21]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학살이 보복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토 대신 방어와 추격을 반복하는 공방전이 1587년까지 이어졌다.

1587년 12월, 녹둔도가 함락된 것을 계기로 재차 정토가 시행되었다.[22] 북병사 李鎰이 녹둔도 함락의 주범으로 時錢部落을 특정, 토병과 첨방군 총 2,500여 명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380급의 수급을 획득한 것이다.[23] 이후 번호의 대대적인 침구가 매우 뜸해진 점으로 미루어 이때의 정토는 상당한 효과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조선이 번호들에 대한 영향력을 온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고, 긴장상태는 계속되었다.

이렇듯 니탕개의 난은 조선이 번호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토'로 규정할 만한 사건은 2차례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방전을 거듭하면서 소굴까지 추격하여 소탕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태의 진정은 기약할 수 없었고 임진왜란의 발발 이후에도 번호들의 배반이 빈발했다.[24] 조선은 회유책에 집중하면서[25] 번호의 이반 현상을 눈

法當先攻弱 宜先剪栗胡部落 以孤尼胡之勢"

21) 『宣祖實錄』 卷19, 宣祖 18年 4月 丁巳(16日).

22) 『宣祖實錄』 卷21, 宣祖 20年 12月 庚辰(26日).

23) 『宣祖實錄』 卷21, 宣祖 21年 1月 辛亥(27日).

24) 『宣祖實錄』 卷39, 宣祖 26年 6月 乙巳(22日).

25) 비변사와 대간을 막론하고 번호의 지속적인 이반 현상을 현지 관원들의 문제로 치부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宣祖實錄』 卷55, 宣祖 27年 9月 己丑(14日)·辛卯(16日)). 이러한 분위

여겨보고 있었다.

1594년 10월, 북병사 鄭見龍은 온성의 번호 伊羅大가 심처의 훌룬과 연계하여 침구해온 것을 문죄하고자 그의 심복으로 지목된 易水의 부락을 정토했다. 역수는 인근 세력으로부터 雄長이라 일컬어지던 세력가로서 이라대와 연계하여 鍾城과 온성 지역을 공략하고 있었다. 정현룡은 경원 일대의 多好里 부락을 먼저 공격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올린 뒤, 항왜를 포함한 총 1,35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역수의 영향 하에 있던 부락들을 정토했다. 정현룡의 부대는 격전 끝에 역수가 웅거한 山城을 함락했고, 분견대는 인근 부락들을 초토화시킨 뒤에 귀환했다.[26]

정현룡의 정토는 임진왜란 이후 저상되어 있던 조정 분위기에 힘을 불어넣었다. 비변사는 정현룡이 國威를 떨치고 逆節의 싹을 잘라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 다른 藩胡로서 같은 족류인 자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 의구심을 품고 선동할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易水 등의 여러 부락이 나라의 大恩을 저버리고 차고 넘치는 죄악을 저질렀으므로 부득이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묻고 天討를 행한 것이다. 나머지 무고한 번호로서 우리나라에 親附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어루만져 줄 것이니 의구심을 품지 말라." 는 뜻으로 명백히 曉諭하고 무릇 지난날 변장과 수령 가운데 침학하거나 도리가 아닌 일을 행한 것들을 모조리 없애어 인자한 은혜와 위령이 아울러 떨쳐져 치우치지 않게 함으로써 영구히 안정되도록 하는 방도를 순찰사에게 함께 행이하심이 어떻겠습니까.[27]

비변사는 배반한 번호를 성공적으로 정토한 것에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선의 행동에 반발한 번호들이 생존을 위해 상호 연대할 가능성을 차

기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나타나는데, 수령의 인선을 중시하거나 간혹 文官 수령을 임명하자는 등의 의견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26) 정현룡이 획득한 수급은 총 470여 개에 달했다(『宣祖實錄』 卷56, 宣祖 27年 10月 乙卯(11日)).

27) 『宣祖實錄』 卷56, 宣祖 27年 10月 乙卯(11日), "而他餘藩胡之同類一體者 或不無因此而疑懼煽動 更以易水等諸部落 忘國大恩 罪惡貫盈 不得已擧兵問罪 以行天討 其餘無辜藩胡 親附我國者 加恩撫恤 勿爲疑懼之意 明白曉諭 而凡前日邊將・守令侵虐非理之事 盡爲蠲除 使仁恩威令 竝行不偏 以爲永久戢寧之道 巡察使處 竝爲行移 何如"

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토의 명분을 널리 선전하고, 앞으로는 더욱 후대할 것임을 약속하여 '恩威竝行'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정토라는 공격적이고 잔인한 군사행동도 근본적으로는 번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번리의 회복에 초점을 둔 것이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병사 이제신, 이일, 정현룡 등이 시행한 정토는 4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경원부 함락, 녹둔도 함락, 온성·종성에 대한 포위 공격 등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침입이 있었을 때 이루어진 점이다. 두 번째로는 심처호와의 연대한 번호를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특히 정현룡이 정토한 역수 부락의 경우 훌룬과의 연계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세 번째는 번호의 배반을 주도한 부락을 특정하여 진행된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정토 이후 인근 번호들의 순종을 유도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선조대의 정토는 배반한 번호 부락을 특정하여 공격하는 형태로 시행되었지만 번리의 재건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恩·威'의 병행이라는 관념적 지향이 현실에서도 가능할 리 없었고, 정토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3. 로툰 부락 정토에 대한 논의와 이정구의 회의론

1599년 8월 4일, 同知中樞府事 李廷龜는 箚子를 올렸다. 비밀로 올라간 차자는 北征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담고 있었다.[28] 차자를 읽어본 선조는 征討 시행의 당위론이 주류를 점한 가운데 직언을 아끼지 않은 그의 자세와 탁월한 상황 판단력을 호평하면서 다시금 의논해보겠다는 批答을 내렸다. 선조의 지시에 따라 본 차자를 검토한 비변사에서는 그의 의견이 '制邊의 成算'이라면서 거사의 시기를 늦추고 형세를 살펴 시행함으로써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回啓하였다.[29] 이정구의 차자를 통해 정토는 보류되고 전면 재검토에 들

28) 上箚의 일자와 그것이 비밀차자였다는 사실은 이정구의 차자를 전재한 『선조실록』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宣祖實錄』 卷116, 宣祖 32年 8月 庚辰(4日)).
29) 『宣祖實錄』 卷116, 宣祖 32年 8月 辛巳(5日).

어간 것이다.

이정구의 차자에서 거론된 北征은 당시 조정의 중론을 차지하던 로툰[老土, lotūn]에 대한 정토였다.[30] 당시 조정에서는 여러 신중론이 있었지만, 북정의 전격적인 보류 결정은 이정구의 차자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듬해 정토는 단행되었고, 이후 로툰은 建州女眞에 歸附하여 번호에 대한 침탈에 앞장서게 된다. 이정구는 왜 차자를 올려 북정을 반대했던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했기에 실행 직전의 군사행동을 보류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정토의 실행이 이루어진 경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1598년 8월, 로툰은 회령부사를 통해 누르하치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침입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 조정에 보고했다. 그는 200년 간 대대로 조선을 섬기며 살아왔음을 스스로 밝혔고, 이후 정헌대부의 관작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번호에 속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 로툰의 진고를 전한 회령부사 박종남이 그를 '水上都酋長'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그는 두만강 상류를 휘어잡는 강력한 세력가였음을 알 수 있다. 로툰의 세력권인 東良北은 茂山의 북쪽 車踰嶺 밖에서부터 시작하여 두만강 상류에 이르는 政丞坡吾達, 虛水羅, 朴加遷(川), 洪貴, 洪丹 등지였다.[31]

로툰의 호소에 대한 조선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북병사 오응태는 로툰을 '反側之輩'로 지칭하면서도 박종남에게 "힘껏 달래어 感恩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32] 회유할 만한 번호로 여기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 무렵 누르하치가 회령 인근의 번호들을 흡수하기 위한 군사

30) 李廷龜의 『月沙集』에는 로툰 부락 정토에 대한 箚子(권30)와 풍계 부락 정토에 대한 獻議(권28)가 있다. 그런데 두 글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어 바로잡는다. 먼저 로툰을 한자로 표기한 '北胡老土焚蕩便否議(권28)'는 풍계 부락 정토에 반대하며 올린 의견이다(1603). 로툰의 정토에 반대한 의견도 있는데, 이는 권30에 있는 차자이다. 차자는 로툰 정토 반대(李廷龜, 『月沙集』 卷30, 箚上, 諫北征箚 己亥秋), 헌의는 풍계 부락 반대 의견(李廷龜, 『月沙集』 卷28, 議, 北胡老土焚蕩便否議, 1603)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전자에는 己亥(1599)라는 연도 표기도 있거니와 같은 시기의 『선조실록』에 동일한 전문이 확인되어 대조가 가능하다. 후자는 그 안에 로툰에 대한 정토[紅丹之役]를 과거형으로 서술했고, 홀룬의 종성 공격이 언급되었으며 풍계 부락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문집 편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31) 로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정수, 앞의 글, 2016b 참조.

32) 『宣祖實錄』 卷103, 宣祖 31年 8月 甲寅(1日).

작전을 펼치는 것이 조선 조정에 보고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3]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이 국내에 있던 명 관원들에게 咨文을 보내어 관련 사실을 보고하거나 그들로부터 누르하치에 관한 첩보를 확보하고자 한 기사들이 『선조실록』에 다수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34]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로툰이 누르하치의 위협을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조선의 내지로 진입하고자 하는지 혹은 아예 누르하치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유야 어쨌든 로툰이 계속해서 남하할 경우, 함경도 내지로의 진입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35] 조선은 로툰의 세력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거나 타일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당시 조선은 차유령 이북을 방어할 만한 거점이 없었고, 허수라천에 禁標를 세워 경계를 구분했을 뿐이었다. 조선은 금표의 이남에는 거주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로툰의 세력은 허수라천을 따라서 남하하여 마침내 금표를 넘고 말았다. 북병사 李鎰은 현지 사정에 밝은 姜億弼 등 토병들을 파견하여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도리어 회령번호 明看老에게 살해되었다.[36] 조선 조정에서는 함경감사 宋彦愼의 장계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37] 강억필의 살해는 로툰에 대한 군사행동의 필요성이 제기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38]

로툰에 대한 정토는 좌의정 李德馨이 처음 언급했다. 선조는 기다렸다는

---

33) 『宣祖實錄』 卷87, 宣祖 30年 4月 戊寅(18日); 『宣祖實錄』 卷98, 宣祖 31年 3月 丁酉(12日); 『宣祖實錄』 卷99, 宣祖 31年 4月 癸未(29日); 『宣祖實錄』 卷100, 宣祖 31年 5月 丙戌(2日).

34) 『宣祖實錄』 卷97, 宣祖 31年 2月 戊午(3日); 『宣祖實錄』 卷99, 宣祖 31年 4月 癸未(29日); 『宣祖實錄』 卷100, 宣祖 31年 5月 丙戌(2日)・丁未(23日); 『宣祖實錄』 卷107, 宣祖 31年 12月 甲子(13日)・乙丑(14日); 『宣祖實錄』 卷108, 宣祖 32年 1月 乙酉(4日); 『宣祖實錄』 卷109, 宣祖 32年 2月 壬子(2日)・甲戌(24日).

35) 당시 富寧 이북에는 이렇다 할 군사거점이 없었고 동량북에서 남하하여 차유령을 넘을 경우 鏡城・吉州・甲山 등 함경도 내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선조대까지도 이 지역에 대한 設鎭이 논의되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장정수, 앞의 글, 2016b, 15-20면). 로툰의 정토가 실행된 이후에야 茂山堡를 鎭으로 승격시켜 대응하게 되지만 이 역시도 군사거점이라기보다는 회유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開市의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36) 『壯襄公全書』 卷1, 再莅北兵使因事拏處時原情.

37) 『宣祖實錄』 卷110, 宣祖 32年 3月 丁未(28日).

38) 『宣祖實錄』 卷111, 宣祖 32年 4月 庚午(21日).

듯이 동조하고 그의 건의에 따라 尹承勳을 함경도관찰사로 임명했다. 로툰에 대한 정토는 불과 며칠 사이에 결정되었는데, 새로 관찰사로 임명된 윤승훈은 부임하기도 전에 자신이 취할 군사적 조치들을 密啓하기도 했다.[39] 이는 토병 살해가 계기였다기보다는 '명분'에 가까웠고 실제로는 정토를 하나의 선택지로 이미 고려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때마침 로툰의 세력이 길주의 都目耳堡 인근까지 내려와 토병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관찰사 송언신은 수많은 길목을 방어하느라 전력이 분산되어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40] 이해 5월 선조는 비망기를 내려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면서 신임 관찰사 윤승훈에게 군율을 어긴 변장들을 梟首하라는 有旨를 보내도록 했다.[41]

선조는 로툰에 대한 정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윤승훈 역시 부임 직후 宴享을 베풀어 번호들의 동정을 살폈고, 오래지 않아 로툰을 정벌할 구체적인 계책을 올렸다. 15개 조로 구성된 그의 방책은 부대별 구분 및 진군 경로까지 포함한 것이었고 해당 지역의 지도까지 올려둔 상태였다. 비변사에서는 윤승훈의 장계를 검토한 뒤, 그대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여 선조의 재가까지 받았다.[42]

그런데 이때 정토의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선조는 윤승훈이 올린 지도를 열람하고 이전에 받아두었던 이일의 六鎭圖形과 대조해본 뒤, 로툰의 세력이 강성하고 작전 지역의 지리 또한 험하여 거사가 쉽지 않겠다고 예상하고 이일에게 정토의 승산을 물었다.[43]

선조의 下問과 이일의 답변은 총 8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출병 지점부터 작전 지역까지의 거리가 얼마이고 지세는 어떠한지, 부락의 다소와 남정의 수효, 본도 병력만으로 작전이 가능한지와 군기의 銳鈍, 三衛가 동시에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44] 이에 대해 이일은

39) 『宣祖實錄』 卷112, 宣祖 32年 閏4月 己卯(1日).
40) 『宣祖實錄』 卷112, 宣祖 32年 閏4月 庚寅(12日).
41) 『宣祖實錄』 卷113, 宣祖 32年 5月 甲寅(7日).
42) 『宣祖實錄』 卷115, 宣祖 32年 7月 壬子(5日)·甲寅(7日)·乙卯(8日).
43) 李鎰, 『壯襄公全書』 卷1, 備忘記. 己亥以後 北胡漸肆 該守臣屢請興師 故上召公問計.

진격로 상의 자세한 상황과 적의 매복 예상 지점, 행군로가 좁고 도강이 쉽지 않은 큰 하천이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어서 적의 수효는 현지의 토병들도 알지 못하고, 현지의 병력과 병기는 모두 충분하지 않으며 삼위의 병력이 일시에 모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여 포수를 비롯한 병력을 보강하고 무기도 다수 들여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의 답변에서 당시 윤승훈 등이 계획한 거사의 일자가 9월 보름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데, 그는 10월 보름 정도로 미루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45] 선조는 이에 대해 포수·무사 그리고 병기까지 들여보낼 것을 지시했다는 비답을 내렸다.[46] 선조와 이일의 문답은 정토를 서두르기보다는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거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었다.

정토의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헌부에서는 경솔히 보복성 정토를 단행했다가 패전할 경우 도리어 번호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면서 준비 부족과 작전 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을 이유로 거사의 정지를 주장했다. 내실을 기하되, 일단 정토를 정지하고 형세를 살피자는 제안이었다.[47] 선조는 이에 대해 "조정의 계책은 이미 정해졌다." 고 답했고, 이틀 뒤 사헌부에서 같은 요구를 해왔을 때도 "군사를 부릴 때는 머뭇거리는 것이 가장 큰 해악이다." 라면서 거부했다.[48] 번호들의 침구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면서 전력을 소모하고 適期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선조는 내심 정토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일의 신중론을 따라서 이미 거사 일자를 10월 중순으로 한 달가량 늦춘 상황이었지만 선조는 7월 말쯤 병조에 전교하여 출병 시기를 9월 10일로 거론하며 병력 조발의 지연을 질책했다. 이에 대해 병조는 "이일의 계사를 보니 師期를 10월 보름께로 물리고자 했다."[49] 는 원론적 해명을 내놓았

44) 李鎰, 『壯襄公全書』 卷1, 逐條問計.
45) 李鎰, 『壯襄公全書』 卷1, 逐條進對.
46) 본 비답의 내용은 『宣祖實錄』 卷115, 宣祖 32年 7月 乙卯(8日)에도 보인다.
47) 『宣祖實錄』 卷115, 宣祖 32年 7月 己巳(22日).
48) 『宣祖實錄』 卷115, 宣祖 32年 7月 辛未(24日).

다. 선조가 이일의 신중론을 좇으면서도 정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조는 재차 이일에게 6가지 사항을 물었다. 로툰의 부락에 성채가 있는지의 여부와 궁시 외에 그들이 소지한 무기, 진격로 상에서 복병을 만날 경우의 대처방안, 숙영시 야습에 대한 대처방안, 북도의 군량 상황, 과연 승산이 있을지의 여부 등이었다. 이일의 회계는 로툰의 부락에 돌과 나무를 섞어 축조한 성채가 있고 갑주와 말이 우수한 점, 적의 매복을 방지하려면 출병 관련 사항을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 야습을 방지하려면 진격로 상에 여러 매복처를 두어야 한다는 점, 군량이 충분하지 않으니 경상도로 보내던 米豆를 留置시켜야 한다는 점, 정토의 시행은 불가피하나 우세한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 茂山 이남의 山堡를 보강하여 대비해야 한다는 점[50]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조는 좌의정 李德馨에게 이일과의 문답 내용을 내리면서 정토의 가부를 다시 물었다. 이일의 신중론에 흔들린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관되게 정토 시행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거사를 정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번호들이 더욱 빈번하게 공세를 가해올 것이라면서 마땅치 않다는 태도를 내비치는가 하면, 이일을 방어사로 삼아 병마절도사와 함께 진격하게 하자는 발언도 하였다.[51] 즉, 이덕형에게 비망기를 내린 목적은 신중론에 수긍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어 大臣의 동조를 얻고자 한 데 있었다.

이덕형은 차자를 올려 답하였다. 그는 정토의 당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덕형은 10월로 출병 시일을 미룬 것도 거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회적으로 신중론을 개진했다. 현지 병력이 부족하여 인근의 병력을 조발해야 하는데 이들을 곧바로 작전에 투입하기 어렵고, 또 진격로 상 곳곳에 병

49)『宣祖實錄』卷115, 宣祖 32年 7月 癸酉(26日), "李鎰啓辭 師期欲退於十月望間 故慮外方抄送 往來之間 少退日期矣"
50)『宣祖實錄』卷115, 宣祖 32年 7月 甲戌(27日).
51)『宣祖實錄』卷115, 앞과 같은 일자의 다른 기사.

력을 분배하려면 포수 1천 명을 포함한 7-8천 명의 병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밖에 군사기밀의 철저한 유지, 요해처를 방어할 추가적인 병력 및 군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일에 관해서는 이미 순변사를 지낸 적이 있어 방어사로 낮추어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52] 선조는 이덕형의 차자를 베껴서 윤승훈에게 보내라고 하면서도 "시기에 미치기는 힘들겠지만 조처할 수 있는 일들은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정토의 강행을 바라는 선조로서는 이덕형의 의견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로툰 부락 정토에 대한 선조의 강한 의지와 여러 관원의 신중론이 나타날 무렵 이정구가 비밀리에 차자를 올렸다.[53] 이정구는 그간 선조가 누차 승산에 대해 하문하고 대간이 거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비변사의 계획과 出師의 시기가 결정되었음을 보고 차자를 올리게 되었음을 먼저 밝혔다. 조심스러운 어조에도 이정구는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의 의견은 이일이나 이덕형, 대간의 의견처럼 신중론에 그치지 않았다.

이정구가 처음 거론한 것은 변방 관원들의 자세였다. 그는 해이한 군율과 경도된 회유책을 비판하면서 將·卒을 모두 엄선하여 방어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로툰의 행동이 누르하치의 사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 경우 정토가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전체 형세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토에 성공하더라도 갈등의 골은 도리어 깊어지고 누르하치의 보복성 공격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정구는 누르하치가 이를 빌미로 침공할 경우 도저히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정구는 일본군의 철수 이후 민생이 안정되지 못했고, 재침 소식마저 들려오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군신 상하가 내실을 기하는 데 전력해야 하며, 적을 막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솔하게 남을 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위태롭다고 하였다. 여기에 더해 出兵의 기일이 너무 촉박하여 병력을 조발하는 동안 이미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는 점, 로툰 부락 등의 지세가 몹

52) 『宣祖實錄』 卷115, 宣祖 32年 7月 丙子(29日).
53) 李廷龜, 『月沙集』 卷30, 箚上, 諫北征箚 己亥秋.

시 험하여 大軍이 신속하게 기동할 수 없고 결국 군기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다하면서 패색이 짙다고 보았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이정구는 정토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정구는 변방 관원들이 군공은 과장하고 손실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현실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또 시전부락을 정토했던 전례를 들어가며, 치밀하게 준비하여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번호들을 威服시키기에 족하지 않았고 재침이 이어졌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정구는 대신들에게 재차 의논하게 할 것을 건의하고, 방어에 주력하면서 기회를 살피되 가벼이 孤兵을 움직여 깊이 들어갔다가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54]

이정구의 차자는 기존의 신중론이 주로 피아의 형세 등 주로 전술적 차원에 그친 데서 나아가 전략적인 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구의 의견은 크게 3가지로 좁혀진다. 첫 번째는 다른 논자들처럼 준비의 부족을 거론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민생의 안정과 일본의 재침에 대한 대비가 우선되어야 할 상황에서 공세적 군사작전의 시행은 무모하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정토가 부를 더욱 큰 환란 즉 누르하치가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토 시행의 승산을 따져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설혹 성공하더라도 실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난처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선조 역시 이정구의 차자에 상당히 동요되었던 것 같다. 그는 비답을 내려 이정구의 의견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강조했고, 곧이어 승정원에 지시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이 차자를 바탕으로 재차 정토의 가부를 논의하게 했다.[55] 비변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하였다.

> 邊臣이 정토를 요청한 것은 실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형세로는 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타도에서 보충하는 군사는 필시 정예병이 아닐 것인데, 기한에 임박하여 들여보내면 곧 지치고 병들어 쓸모없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치고 병든 군사로는 적의 소굴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54) 앞과 같음, "將已調之兵 分守要害 以防竊發 臨機量勢 以待可乘之會 愼勿輕擧妄動 孤兵深入 以貽後悔"
55) 『宣祖實錄』 卷116, 宣祖 32年 8月 庚辰(4日).

> 올바른 계책이 아닙니다. (…) 지금 이정구가 차자를 올려 말한 것을 보건대 실로 변방을 다스리는 성산입니다. 조정 신료들의 의견 또한 모두 그러합니다만 변신의 獻策으로 인하여 성상께서 계책을 정하셨는데 대사를 가로막는 일이 미안하여 감히 경솔히 의논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하교를 받드니 어찌 감히 다른 의논을 드리겠습니까. 정예로운 포수를 뽑아 보내어 添防케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더라도 거사에 이르러서는 다시 변신으로 하여금 사세를 헤아리고 時宜를 살펴서 혹 시기를 물려 명년 봄으로 정하는 것이 만전의 계책으로서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56]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비변사는 이정구의 차자에 적극 동조했다. 형세에 대한 진단 외에도 이정구가 거론한 군공 및 손실의 보고 문제, 일본의 재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거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선조 역시 비변사의 회계에 따름으로써 정토의 시행은 형세를 살피고 내실을 기하여 해를 넘겨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정구의 차자는 로툰의 정토에 대한 조정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는 정토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으며, 지금은 내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로툰의 일당이 침입하여 鏡城 倉監官 朱京浩를 살해하고 倉使令 李允夫를 잡아가는 심각한 사건이 전해졌음에도[57] 방어에 주력한다는 분위기는 한동안 유지되었다.

로툰에 대한 정토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이듬해 解氷에 맞추어 실행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이었다. 선조는 여전히 정토의 강행을 바랐다. 그해 12월 添防한 타도의 군졸들이 군량 부족을 이유로 귀가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거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라고 묻기도 했다.[58] 이때 함경도사 姜弘立이 현지 사정을 전하면서 3월 초에 행군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고

---

56) 『宣祖實錄』 卷116, 宣祖 32年 8月 辛巳(5日), "邊臣之請討者 亦出於不得已也 但今日之勢 極有所難 他道添防之兵 必非精銳 而及期驅入 則將爲疲病無用之卒 以此疲病之卒 雖欲深入賊窟 其策無由 (…) 今見李廷龜上箚之辭 實爲制邊之成算 在廷臣僚之意 無不皆然 只緣邊臣獻策 睿算已定 以沮遏大事 爲未安 不敢輕議 今承下敎 豈敢更有他議 量抄砲手精銳 入送添防 在所不已 至於擧事 則更令邊臣 量其事勢 相其時宜 或退期限於明春 計出萬全 可無後悔"

57) 『宣祖實錄』 卷116, 宣祖 32年 8月 丁亥(11日).

58) 『宣祖實錄』 卷120, 宣祖 32年 12月 丁亥(12日).

해왔다.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사할 계획이 결정된 듯하니 비변사에 알려 조처하게 하라." 는 전교를 내렸다.[59] 선조의 의지를 확인한 비변사에서는 강원·경기의 무사 500명, 경포수 100명, 황해도 포수 100명, 평안도 포수 600명을 정선하여 파견하고 3월 보름에 起兵하는 방향으로 관찰사와 병마절도사에게 지시하겠다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60]

정토를 희망하는 선조의 의중은 뚜렷해졌지만 이번에는 현장의 관원들이 주저했다. 1600년 1월 비변사는 이러한 현지 사정을 아뢰면서, 출병과 農時가 겹칠 수 있다는 점과 解氷에 따른 경보 즉, 일본의 재침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포수를 제외한 각 도 무사의 징발은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61] 선조는 예정된 거사를 중지하자는 뜻이냐고 물었고, 비변사는 첨방한 포수들이 토병과 함께 요새를 지키면서 시의에 따라 攻守를 결정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자 선조는 "대대적인 거사는 할 수 없겠구나." 라며 아쉬워하는 속내를 보이면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62] 이때쯤 이일이 다시 상소를 올려 일본의 재침 우려와 작전 실패시의 후폭풍 등을 주요 이유로 제기하며 정토불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로툰 등의 번호 이반 현상이 근본적으로는 미진한 회유책에 기인한다면서 전례대로 上京・연향의 제도를 복구하고 아울러 茂山堡를 鎭으로 승격시켜 開市하는 방안을 제시했다.[63] 이는 여진인들에 대한 회유책을 기조로 삼되, 육진의 병력을 충실히 하자는 자강론이었지만 선조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1599년부터 시작된 로툰에 대한 정토는 오랜 논쟁을 거쳤다. 선조의 강한 의지로 정토가 추진되었지만, 크고 작은 반대에 직면했다. 국왕의 강한 의지를 알고 있던 신하들의 발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토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정구의 의견으로 정토에 대한 신중론이 내실론으로 기울면서 거사는 보류되었

59)『宣祖實錄』卷120, 宣祖 32年 12月 己亥(24日), "擧事之計 似已決矣 言于備邊司措處"
60)『宣祖實錄』卷120, 宣祖 32年 12月 癸卯(28日).
61)『宣祖實錄』卷121, 宣祖 33年 1月 戊申(3日).
62)『宣祖實錄』卷121, 宣祖 33年 1月 己酉(4日).
63) 李鎰,『壯襄公全書』卷1, 又追上一疏.

다. 하지만 이듬해 3월 로툰 휘하의 세력이 다시 남하하여 조선군과의 교전 끝에 부령부사 李侃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정토는 단행되었다. 앞장에서 선조대 정토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설명한 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침입이었기 때문이다. 4월 14일 북병사 이수일이 三衛로 편성된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정토를 단행했으며, 차유령 이북의 로툰 부락을 포함한 동량북 일대는 초토화되었다. 로툰은 혜산진을 경유하여 건주여진에 귀부하게 된다. 이 정구의 예상대로였다.

4. 풍계 부락 정토에 대한 논의와 이정구의 반대론

로툰 부락에 대한 정토는 대단한 여파를 남겼다. 군사작전 자체는 성공적이었다. 관찰사 윤승훈은 장계를 올려 수급 115馘・생포 1명을 군공으로, 전사 7명을 손실로 보고했다.[64] 로툰 부락을 비롯한 동량북 일대의 부락들은 초토화되어 재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군은 농경지를 짓밟고 가옥은 일일이 도끼로 부수었으며 연소될 만한 모든 것을 불살랐다. 삶의 터전을 잃은 로툰의 세력은 甲山 일대로 이주했으므로 조선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승훈의 보고에서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장쾌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술했지만, 적지에서의 宿營을 꺼려 밤새 회군한 사실도 적었다. 흩어졌던 여진인들이 다시 결집하여 추격해온 탓에 砲手와 土兵들은 후미에서 교전하며 후퇴하는 조선군을 엄호해야 했다. 출발지였던 豊山堡에 도착한 뒤에도 접전은 2-3차례 이어졌다.[65] 全勝을 주장하는 장계에 쫓기듯 회군한 사실이 묘사된 셈이다. 적의 주력을 섬멸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선은 로툰에 대한 정토를 성공으로 평가하고 방어태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로툰이 갑산의 惠山 인근에 머물면서 인근의 번호 부락을 공

64) 『宣祖實錄』 卷125, 宣祖 33年 5月 庚戌(8日).

65) 앞과 같음, "經宿賊中 慮有意外之變 三衛鱗次回軍 直向豊山 行到十餘里 日沒月黑 賊之追騎 已躡其後 以京砲手及精銳土兵捍後 且戰且行 故不得快回 以致達夜 十六日酉時 始到豊山堡 賊兵終始不退 此日亦再三接戰"

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선조는 로툰의 '잔당'이 혜산을 통해 咸興으로 直搗하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분리시키는 상황, 누르하치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66] '대승'을 거두고서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로부터 다시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甫乙下鎭의 僉使 具滉이 일군의 賊胡와 전투 끝에 전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대적한 것은 로툰이 인도해온 건주여진의 군사들이었다.[67] 그간 우려하던 로툰과 누르하치의 연대가 현실화된 것이다.

로툰이 위협으로 등장했을 무렵, 鍾城 일대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다. 종성의 번호 阿堂介가 훌룬과 연대하여 조선을 배반한 것이다. 아당개는 로툰 만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훗날 비변사에서 "로툰이 가장 먼저 배반하고 아당개가 이어서 일어나 회령 등의 번호를 지속적으로 약탈하였다." 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68] 두 추장의 배반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로툰은 건주여진, 아당개는 훌룬과 연대하여 각각 동쪽과 서쪽에서 회령의 번호들을 경쟁적으로 공략했던 것이다.

번호와 훌룬의 연대는 이전에도 수차례 표면에 드러난 바 있다. 앞장에서 소개한 정현룡의 정토(1594) 당시에 온성·종성의 번호 부락 상당수가 이미 훌룬의 영향 하에 들어가 있었다. 1596년에는 훌룬이 온성 인근의 번호와 체결하여 침입을 기도한다는 사실이 함경도관찰사 洪汝諄의 장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69] 훌룬은 일찍이 번호 부락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면서 조선의 변경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1600년에 이르면 온성 인근의 번호 일부가 종성을 근거지로 한 아당개를 통해서 훌룬과 연대하였다. 훌룬을 배후에 둔 이들 세력은 조선의 영향 하에 있던 인근 번호들을 약탈하고 온성을 포위했다. 그러자 온성부사 李應獬는 북병사 李守一과 비밀리에 정토를 계획했고, 이를 조정에 보고하여 재가를 얻었다. 이수일은 다시 관찰사 윤승훈과 상의하였고 1601년 1월 水乙虛·交老

66)『宣祖實錄』卷126, 宣祖 33年 6月 癸巳(22日).
67)『宣祖實錄』卷127, 宣祖 33年 7月 戊午(17日).
68)『宣祖實錄』卷169, 宣祖 36年 12月 辛亥(30日), "老土首叛 阿堂介繼起 會寧等藩胡 搶掠無已"
69)『宣祖實錄』卷72, 宣祖 29年 2月 丙寅(29日).

부락을 특정하여 공격을 가했다.[70] 이 정토에서 조선은 229개의 수급과 7명의 포로를 확보했으며, 이수일의 장계에 따르면 피해는 부상 5명에 그쳤다.

정토의 양상은 이전과 비슷했다. 조선군은 해당 부락들을 기습했고 곡식을 불태웠으며 가축까지 모조리 도살하여 생존 기반을 제거했다. 숙영하지 않고 당일 회군한 것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로툰의 정토 이후 건주여진이 개입한 것처럼, 이번에는 훌룬이 세 갈래로 군대를 나누어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71] 아당개가 원거주지를 버리고 훌룬에 들어간 점도 유사했다. 훗날 아당개는 훌룬에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 李難에게 옛 터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토로했는데[72] 이는 그가 조선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훌룬에 귀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수을허・교로 부락은 심처호와 연계하여 인근의 번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토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심처호의 개입이 확인된 만큼 공세적 전략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웠다. 조선은 번호에 대한 회유책으로 급선회하는 한편, 번호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사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방비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73] 번호・건주여진・훌룬의 복잡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번호에 대한 회유를 통해 번리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1602-1603년 조선은 茂山의 개시를 의논하고 시행함과 동시에 그간 번호들에게 하사하던 의복과 잡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회유하고자 했다.[74]

번리의 정상화를 통해 심처호를 방비하려던 조선의 의도는 뜻밖의 사태에 의해 무산되었다. 1603년 8월, 훌룬이 돌연 종성과 그 인근의 번호 부락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 것이다. 훌룬의 군대는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며 번호

70)『宣祖實錄』卷134, 宣祖 34年 2月 甲申(15日).
71)『宣祖實錄』卷137, 宣祖 34年 5月 甲子(27日)・乙丑(28日).
72)『宣祖實錄』卷177, 宣祖 37年 8月 丙戌(8日).
73) 조선의 대표적 조치는 邊將에 대한 단속 및 엄선이었다. 1602-1603년에는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힘의 투사보다는 평시 현장 관원들이 번호를 대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동시에 流民을 안집시키고 병력・군량・무기 등 전력 확보에 나섰던 것은 정토에 이은 보복을 대비하려면 번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을 반증한다.
74)『宣祖實錄』卷164, 宣祖 36年 7月 丙寅(12日).

부락들을 소탕하더니 종성과 潼關鎭 등 조선의 진보까지 공략했다.[75] 그동안 완충지대로 작용해온 번리를 장악한 데 이어 조선의 변경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조선이 훌룬의 공격으로부터 번호를 보호하기는커녕 수세로 일관하자 번호의 이반 현상은 심화되었다.

이 사태는 번호를 병합함으로써 세력을 불리려는 훌룬과 번리를 유지함으로써 변경을 안정시키려는 조선의 의지가 충돌한 것이었다. 번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한 세력에 복속해야 했다. 조선은 번호를 다잡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훌룬에 협력한 부락을 정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豊界 부락이었다. 조선은 풍계 부락이 양식과 주둔지를 제공하여 훌룬의 원정을 지원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76] 조선은 정토를 통해 훌룬의 중개거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번호들에게 武威를 과시할 요량이었다.

선조는 풍계 부락 정토를 주저했다. 비변사에서 풍계 부락의 정토를 제안하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선조가 로툰 부락 정토를 논의할 때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앞서 2차례의 정토를 시행한 뒤 번호에 대한 회유책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상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 첫째 이유였다.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부령부사와 전투를 벌여 중상을 입힌 로툰과 달리, 이번 사태에 번호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가늠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훌룬이 아닌 번호에게 책임을 미루어 정토를 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했다.

> 이 오랑캐의 정상과 곡절을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억견으로 말한다면 큰 적에게 협박당하여 스스로 충성을 바치지 못하였는지 어찌 알겠는가. 전부터 向化한 오랑캐라면 하루아침에 기꺼이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 어찌 本情이겠는가. ①큰 적이 이미 그 부락에 이르렀다면 물건을 바치고 양식을 대주었다 해서 그것을 책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예부터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자는 사리가 분명하고 의리가 바른 자가 아니면 오직 그 형세에 좇는 것이니, 공격 받아

75) 『宣祖實錄』 卷166, 宣祖 36年 9月 甲寅(1日)・丙辰(3日).
76) 『宣祖實錄』 卷166, 宣祖 36年 9月 庚申(7日).

서 험한 데로 달아나기에 급한 판국에 어찌 이것저것 가리겠는가. 더구나 금수같은 夷狄인 데이겠는가. ②藩胡는 羈縻해야 할 禽獸이다. 설혹 공모하여 악을 같이 한 정상이 있더라도 우선 금수로 보고 기르면서 어루만지며 다시 사세를 보아 천천히 편의를 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인데, **이제 참지 못하고 발끈하여 군사를 쓰기에 바빠서 스스로 번리를 철거하면 仁은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하지 못하고 武는 위엄을 보이기에 부족할 것**이다. ③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큰 적과 남방에 대치하고 있어 숙원을 아직 갚지 못하여 전쟁의 경보가 한번 있으면 사직의 안위가 위협을 받는데, 이것도 부족하여 다시 북방에서 일을 만들어 함부로 오랑캐의 환난을 유발한다면 반드시 앞뒤로 적을 받게 될 것이니, 타당한 계책이 아닌 듯하다. 길흉과 회인이 다 움직이는 데에서 일어나므로 제때 움직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지금은 군사를 쓸 때가 아니다. 또 군사가 출동할 때에는 ④명분이 있어야 적을 복종시킬 수 있다. 진고하지 않은 것은 토벌할 만한 것이 아니며 물건을 바치고 양식을 대준 것도 꾸짖을 만한 것이 못된다. 潼關에서 끌어들인 것도 반드시 협박당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⑤그러나 한번 토벌하여 遠近이 두려워 복종하고 변방의 길이 편안하게 된다면 진실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77)

인용문은 풍계 부락 정토에 대한 선조의 생각이다. 장문이지만, 꽤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어 전문을 인용하고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보았다. ①은 번호들이 갑자기 출현한 강력한 부족의 협박을 받았으므로 그들을 책망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는 번호들이 훌룬과 연대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번리인 만큼 정토를 능사로 여기지 말고 차라리 무휼에 집중하자는 의견이다. ③은 일본의 재침이 예상되는 가운데 먼저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④는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①과 일맥상통하며 비록 동관진 공격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되

77) 『宣祖實錄』 卷166, 宣祖 36年 9月 庚申(7日), "此胡之情態曲折 雖不詳知 以臆見言之 安知不爲大賊所脅 不能自致乎. 若自前向國之胡 則一朝甘心叛國 豈其本情哉. 至於大賊 已到其部落 則責其獻物濟糧 豈不過哉. 自古介於兩國之間者 非理明義正 惟其勢是趨 鋌而走險 急何能擇. 況夷狄禽獸乎. 藩胡羈縻之禽獸也. 設或眞有通謀同惡之狀 姑且畜之以禽獸 因以撫之 更觀事勢 徐圖其便 亦不難矣. 今不耐 悻悻銳於用兵 自撤其藩籬 仁不能以柔遠 武不足以取威 今時何時也. 大敵對南 深讎未復 風塵一警 社稷安危 決在呼吸. 此而不足更事北方 橫挑虜患 必將爲腹背受敵 恐非計之得也. 吉凶悔吝 皆生於動. 故曰 動惟厥時 今非用兵之時也. 且師出有名 敵乃可服. 不爲進告 非可討也 獻物濟糧 不足責也. 潼關之引 未必不爲所脅 然倘一致討 而遠近慴服 邊境永安 則誠不可不爲."

었지만, 명분으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⑤는 여지를 남긴 것이지만 정토가 번리의 복원에 일조하고, 이로써 변경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상을 통해서 선조는 정토보다는 회유책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말미에 정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고 피력했지만, 로툰 부락 정토를 논의하던 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78] 당시 선조는 여러 신하에게 하문하면서도 먼저 당위성을 밝힌 뒤, 정토의 가부를 물었다. 그런데 이때는 정토의 시행이 당위 면에서나 전략적인 면 모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에야, '만약' 정토가 변경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면 시행하라는 어조를 사용했다.

조선은 1600년 로툰의 부락이 소재한 동량북을, 1601년에는 훌룬과 연계한 수을허・교로 부락을 정토한 바 있다. 조선의 정토는 잔인하리만치 혹독하여 번호 부락을 사실상 지워버리는 행위였다. 반역자에 대한 처벌과도 비슷했는데, '시범 케이스'로 삼아 배반할 의지 자체를 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처럼 제한적인 작전으로는 번호를 장악하려는 심처호의 의지까지 꺾을 수는 없었다. 조선 내부에 정토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강해지면서 회유책을 강조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인용문에서 볼드체로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자. 선조는 인내하지 못하고 함부로 무력을 사용하려는 자세를 언급하였다. 그것이 적절한 회유책도, 강경책도 아니라서 스스로 번리를 철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즉, 보복성 정토는 번호들을 복속시키는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행위이고 도리어 번호들의 이탈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병사 李用淳이 다시 장계를 올려 풍계 부락 정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아뢴 것이 이로부터 50일 가량 지난 뒤였음을 고려하면, 선조는 다시 한

78) 수을허・교로 부락 정토는 비밀리에 추진된 만큼 예외로 한다. 이때는 온성부사가 북병사와 몰래 계획을 세워 조정에 비밀리에 아뢰었고, 승인도 비밀리에 내려갔다(『宣祖實錄』 卷134, 宣祖 34年 2月 甲申(15日)). 비변사의 關文을 받은 뒤에야 북병사가 순찰사와 논의했음을 감안하면, 조정 내에 반대론과 신중론이 거셌던 로툰 정토 때와는 차이가 있다.

번 정토의 가부를 살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순은 다시 장계를 올려 정토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번호들이 훌룬의 위협을 받았다고 해도 진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문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자에게 약한 것이 夷狄의 본성인 만큼 武威를 내보여야만 번호들이 훌룬에 기울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위나 필요 면에서 정토의 시행은 불가피하며 강력한 경고성 정토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용순은 거사에 대한 조정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듬해 1-2월 사이에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장계를 마무리했다.[79]

비변사는 관찰사와 북병사의 장계를 검토한 뒤에 정토를 허가하자고 건의했다. 순찰사 한효순의 장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용순의 장계 안에 "순찰사와 만나 논의했는데 뜻이 다르지 않았다."[80] 고 한 점으로 미루어 그 역시 정토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 같다. 비변사에서도 풍계 부락의 정토가 수을허 부락 등에 대한 정토보다도 쉬울 것이라 예상하고 본도의 제안에 따를 것을 건의했다.[81] 선조가 윤허함으로써 풍계 부락에 대한 정토는 승인되었다.

이때 이정구가 풍계 부락 정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82] 그는 이전보다 강한 어조로 정토에 반대하면서 '內修'를 강조했다. 이정구는 서두에서 회유보다는 강경책을 선호하는 북방의 분위기를 문제시했고 또 그것이 보다 심각한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구는 누르하치가 세력을 떨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가 명나라마저 압박하여 요동이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이른바 '관전 6보의 방기'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83] 이정구는 누르하치가 로툰과 혼인으로 맺어졌고 또 훌룬과 동맹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면서 종성 공격의 배후에 누르하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

79) 『宣祖實錄』 卷167, 宣祖 36年 10月 戊申(26日).
80) 앞과 같음, "巡察使韓孝純 適巡到北關 臣會同商議 則其意不相差池"
81) 『宣祖實錄』 卷168, 宣祖 36年 11月 癸亥(11日).
82) 李廷龜, 『月沙集』 卷28, 議, 北胡老土焚蕩便否議.
83) 관전 6보의 방기는 1605년 무렵으로 설명되지만, 그 이전부터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누르하치의 압박으로 관전보 등의 인민들을 내지로 철수시킨 사건을 이른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황지영, 「李成梁事件을 통해서 본 17세기 초 遼東情勢의 變化」, 『朝鮮時代史學報』 21, 朝鮮時代史學會, 2002.

다.[84] 이정구는 정토의 여파가 훌룬 혹은 건주여진 등 어느 지경에 이를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전망한 셈이다.

정토의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이정구는 기습을 가하는 것이 제왕의 도리가 아닌 것은 차치하더라도 결국에는 기밀이 누설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로써 혹한의 추위에 시달리는 아군이 적의 복병에게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으므로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리적인 면에서 행군이 쉽지 않고, 노숙하면 적의 기습에 노출되며 야음을 틈타 회군하면 으레 추격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난 일을 거울로 삼을 만하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85]

번호들에게 무위를 떨친다는 발상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시전 부락(1588), 역수 부락(1594), 紅丹 부락(1600)[86]에 대한 정토를 거론하며 "당시에는 승전한 듯했지만 오랑캐들의 침략은 그칠 때가 없고 도리어 심해졌으니 과연 겁을 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87] 이정구는 북병사 등 정토에 참여한 현지 관원 및 장수들이 功賞을 바라고 전공을 과장했다고 여겼으며 빈집을 불사르고 병든 가축을 노획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를 축소한 사실도 언급했는데, "당시에는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해마다 오랑캐의 소굴에서 도망쳐 오는 자가 끊이지 않으니 신은 늘 분개합니다. 우리가 적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적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다.[88]

이정구는 정토의 실상을 통렬히 비판한 뒤 풍계 부락 정토의 명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점에서 그는 '大賊의 협박을 받아 물자를 바친 것'이라며

---

84) 李廷龜, 『月沙集』 卷28, 議, 北胡老土焚蕩便否議, "聞與老土結婚 忽溫通謀 頃日鍾城之寇 安知老賊之試我淺深耶"

85) 앞과 같음, "虜窟雖近 師行難疾 露師經宿 則最憂暗襲 乘暮回軍 則例被尾擊 已事足徵 雖悔何及"

86) 紅丹은 동량북의 최북단에 위치한 紅丹水를 이른다. 로툰의 부락이 소재한 곳이다.

87) 李廷龜, 『月沙集』 卷28, 議, 北胡老土焚蕩便否議, "且所謂威懾者 臣實未解 日前焚蕩之擧 凡幾度矣 如時錢之役·逆水之役·紅丹之役 率皆帥臣張皇無實之報 以邀一時功賞 當時則似若勝捷 而此虜之跳梁侵掠 殆無已時 反有甚焉 未知果能懾之而懾乎"

88) 앞과 같음, "焚空廬擄病畜 所得甚少 而塞上健兒 亡失太多 其時以爲無一人死傷 自虜中走回者 連歲不絶 臣常憤之 臣恐我未懾虜 而虜反懾我也"

선조와 생각을 같이했다. 이어서 번호를 잘 타일러서 아군으로 만들어야지, 자극해서 배반하게 하는 것은 利敵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 정토는 威服의 효과 대신 심처호에게 공격의 빌미만을 제공한다면서, 방비태세를 강화하고 內修에 진력하자고 제안했다.[89]

이상에서 풍계 부락 정토에 대한 이정구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전에 로툰 부락 정토에 대해 올린 차자와 비교했을 때 강조점이 약간 변화했다. 먼저 누르하치와 번호의 연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이해했다. 로툰 정토 당시에는 의구심이었다면, 이제는 확신 수준이었다.[90] 조선의 섣부른 정토가 훌룬 뿐만 아니라, 건주여진의 개입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정토 시행 과정에서의 전술적인 부분은 오히려 덜 강조했다. 풍계 부락이 온성으로부터 멀지 않았기 때문인 듯한데, 그럼에도 군사기밀이 누설되어 적이 복병을 미리 설치할 경우 큰 피해를 입어 패전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본 헌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정토의 실효성 부분이다. 지금까지 거듭 강조했듯이 조선은 정토를 통해 근본적으로는 번리를 복원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배반한 번호를 도려내고 울타리를 정상화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전례를 들어 정토 이후 여진인들의 침구가 더욱 빈번해졌음을 강조했다. 무위를 통해서 번호들을 제압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군공의 확대 보고와 피해의 축소 보고였다. 이정구에 의하면 조선의 정토는 장정들이 빠져나간 텅 빈 부락을 공격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전과를 강조해야 했던 현지 관원들의 과장된 보고가 반복되었다.

이는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사실이기도 했다. 당초 조선이 여진을 상대로 벌인 군사행동에서 약자에 대한 학살과 이로 인한 宿怨의 발생은 오래전부터

89) 앞과 같음, "豐界諸胡之獻物濟糧 不過爲大賊所劫 似非必問之罪 因而撫之 則足爲我用 激而使叛 則益爲彼助 夷狄雖強 無釁則不動 却慮區區一擧 未足示威 而適爲彼執言之資也 臣之愚意。姑令申嚴西北之備 撫集軍民 措峙糧械 以爲來則拒之之策 悉罷非時之擧 以盡內修之方 似爲得宜"

90) 건주여진과 훌룬의 연대는 조선 조정이 공유한 의심이었다.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만, 1605년 7월 조선이 명의 요동아문에 해당 사실을 보고할 때 부잔타이가 누르하치의 사주를 받아 조선의 변경을 침공했다고 명시하여 논란이 되었다(張禎洙, 앞의 글, 2019, 74-76면).

회자되었다. 명종 연간 伊應巨島를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 북병사 李思曾이 草串의 호인 17戶를 공격하겠다고 청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영의정 沈連源 등은 "부녀자와 노약자 및 두려워서 항복하는 자들까지 도륙할까 염려되니, 많이 죽이기를 힘쓰지 말라는 뜻도 비밀히 하유하소서." 라고 한 바 있다.[91] 초관 정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심연원의 이 같은 당부는 당시 약자에 대한 학살 행위가 관행에 가까웠음을 시사한다.

선조대인 1568년 4월 경연석상에서 좌의정 權轍은 압록강 상류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인 驅逐 작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군의 살육을 거론했다.

> 이번의 驅逐은 실로 크게 병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지만, 군사가 무기를 들었으니 살육이 없지 않았습니다. 죄 있는 남자는 죽여도 괜찮겠지만, 부녀자들은 당연히 분별해야 합니다. 지난 갑인・을묘년에 당시 草島(草串-필자)의 오랑캐들이 경흥을 침범하자 병사 이사증에게 명하여 쳐 없애게 했습니다. 이사증이 당초 남녀를 분별하려 했으나 전장에 임해서는 망각하여 호령하지 않아 결국 부녀자까지 죽였으니 천지의 和氣가 손상되었습니다.[92]

이때 거론된 구축은 廢四郡의 西海坪에 몰래 들어와 경작하면서 터를 잡아가던 여진인들을 쫓아낸 행위를 이른다. 조선은 이 지역을 실효지배하지 못했지만, 종종 군사를 보내어 무력시위를 벌이거나 거주하는 여진인들을 구축하고 그들이 경작한 곡식을 베어버리기도 했다.[93] 정토와는 성격이 달랐지만, 빈번한 충돌이 벌어지고 더러는 살육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조정에서도 이를 문제로 인식했고, 金秀文이 새로 평안병사로 임명될 때 좌의정 권철은 구축시 약자들의 살육을 삼가라고 그에게 당부하기도 했다.[94]

---

91) 『明宗實錄』 卷15, 明宗 8年(1553) 12月 辛巳(9日), "令本道節度使 多方設策 祕密措置 量抄精兵 出其不意 水陸幷進掩襲 使無孑遺 但慮婦女老弱及畏服迎降者 竝被屠害 勿務多殺之意 祕密下諭"

92) 柳希春, 『眉巖集』 卷15, 經筵日記, 戊辰年 4月 29日, "今此驅逐 固非大段興兵 然軍士持兵 不無殺戮男子有罪者 可也 至於婦女 亦當分辨 向在甲寅・乙卯時 草島胡人犯順慶興 命兵使李思曾攻討 思曾初欲分辨男女 逮臨戰場 忘未號令 遂至殺戮婦人 傷天地之和"

93) 이 시기 폐사군 일대에 시행되던 구축이라는 형태의 군사작전에 관해서는 김순남, 「조선 中宗代의 북방 野人 驅逐」, 『朝鮮時代史學報』 54, 朝鮮時代史學會, 2010 ; 이재경, 앞의 글, 2018에 자세하다.

94) 柳希春, 『眉巖集』 卷15, 經筵日記, 戊辰年 4月 29日, "臣於金秀文之去也 戒以務生擒 不得已然後殺戮推捕者 勿殺微弱婦女"

하지만 김수문 역시 서해평에서 구축 작전을 시행하면서 노인, 어린이,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살육했고 정작 장정들은 대부분 도주했다.[95] 이들이 다시 모여 보복을 감행했으므로 구축이나 정토와 같은 강경책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구조였다.

1574년 質正官으로 명나라를 다녀온 趙憲은 상소를 올려 이러한 행위를 비판했다. 서해평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사들이 농지를 짓밟는 등 본국에 폐해를 일으키는 반면, 해마다 시행하는 작전으로 미약한 일개 부락도 감당하지 못하여 적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취지였다.[96] 1585년의 경연석상에서는 당시 번호의 반란에 정토를 강력히 주장한 선조 역시 정토시 노약자까지 몰살시키는 실상을 듣고는 '不仁'하다면서 노약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지시했다.[97] 이러한 행위는 장정이 도주한 뒤에, 전공의 확보를 위해 남겨진 약자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들의 수급으로 전공을 과장했던 것이다. 반면, 도주했던 장정들은 인근 부락의 협조를 얻어 회군하는 조선군을 맹추격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정토의 실상이었다.

이정구가 군공의 날조, 피해의 축소보고 등을 지적한 것은 이와 직접 관련이 있다. 조선군의 정토는 구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지만, 규모 면에서 좀 더 컸다. 선조대 육진에서 번호 부락을 대상으로 시행된 작전은 대부분 2,000-3,000명 정도로 시행되었는데, 京砲手와 인근 지역의 무사들까지 동원한 꽤 큰 작전이었다. 구축 작전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아야 1,800여 명 정도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더 강한 전력이 동원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소모가 큰 행위였고 수천 명을 동원한 상황에서 적의 주력이 빠져나갔다고 하여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올 수는 없었다.[98] 결국 조선은 미처 공격을 피하지 못한 약자들을 대거 살육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수급이

95) 李珥, 『栗谷先生全書』 卷28, 經筵日記, 隆慶二年戊辰.
96) 趙憲. 『重峯先生文集』 卷3, 疏, 質正官回還後先上八條疏 甲戌 11月, "故歲動關西兵馬 一不得伸威於一部落之羸胡 脫遇勁適 則土崩瓦解 定在須臾之間矣 故頃如金秀文者 亦屢深入矣 而未嘗遠動內地之軍 止用江邊土兵 而不至敗事 近歲愈勤遠兵 而愈未見功成 祗益取笑而召侮"
97) 『宣祖實錄』 卷19, 宣祖 18年 4月 丁巳(16日).
98) 시전 부락 정토(1588) 때는 건장한 여진인들이 모두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 보복성 침입을 가했다(『宣祖實錄』 卷22, 宣祖 21年 6月 丙寅(14日)).

상당수 전공으로 포장되었을 것이다. 이정구도 언급했듯이, 全勝이라던 정토 이후 도리어 여진 측에서 조선인 포로를 돌려보내는 일도 발생했다. 여진과의 전투에서 피해를 축소하여 보고한 것도 이전부터 존재한 관행이었다.[99]

정토에 대한 이정구의 회의론은 이러한 실상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정구는 번호를 대상으로 시행된 정토가 그들을 위압하거나 순종시키는 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았고, 도리어 그들의 원한을 키워 이반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북도에서 정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은 전공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이해득실 면에서 정토는 분명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정구는 심처호에 대한 방비책의 일환으로 번리의 복원을 원한다면, 성급한 보복성 정토보다는 군사력의 내실을 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번호들을 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정구의 헌의가 있을 무렵 훌룬이 온성과 경원에 대한 공세를 재개함으로써 풍계 부락에 대한 정토는 결국 무산되었다. 훌룬은 1604년에 아당개의 옛 부락이었던 件退에 요새를 건설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605년 3월에는 마침내 潼關鎭을 함락시켰다. 북병사 金宗得은 3천 명의 조선군을 거느리고 건퇴 부락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벌였으나, 불과 500여 명 남짓의 훌룬군에게 대패하였다. 이는 조선의 마지막 공세적 군사행동이었다. 김종득과 관찰사 徐渻은 이때도 패전을 승전이라고 보고했으나, 현장을 조사한 御史가 조선의 처참한 패전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을 과장하고, 피해를 축소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표되었다.[100] 이때의 패전으로 조선은 山城을 축조하여 방비책에 전력하는 한편, 명나라에 훌룬・건주여진의 번호 침탈을 보고하고 아울러 훌룬에게 職牒과 祿俸을 제공하며 화친하게 된다. 이는 조선이 번호규례를 적용하여 심처호와의 관계를 재편하게 된 계기였다.

5. 맺음말

99) 피해의 축소보고는 니탕개의 난 당시 여진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다(『宣祖實錄』 卷17, 宣祖 16年 11月 戊申(30日)).
100) 장정수, 앞의 글, 2013, 178-190면.

조선의 對여진 정책에서 정토·정벌은 강경책의 일환으로써 회유책과 함께 쓰인 강온양면책으로 알려져 왔다. 조선이 여진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그들을 통제했다는 의미로 쓰이곤 했다. 하지만 '恩威竝用(竝行, 竝施)'이라는 관념이 현실에서 관철된 것은 아니다. 조선은 여진의 諸부족과 공존하면서도 상시적인 긴장상태에 놓여 있었다. 형식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조선이 여진을 지배했고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군사력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는 곤란하다. 빈번한 무력의 사용은 조선이 여진을 통제하지 못했음을 반증할 뿐이다.

선조대는 대여진 정책상 관념과 현실의 괴리가 표출된 시기이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16세기 이후 조선이 군사 및 재정 면에서 전보다 위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근 여진 세력의 급격한 성장에 기인하기도 했다. 조선의 논자들은 여진을 제대로 撫恤하지 못하고 侵虐을 일삼은 탓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여진 정책의 허구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16세기 중반 이후 藩胡-深處胡의 구도로 자리를 잡은 육진 일대의 대여진 정책은 당초 여진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자신만의 세계였다.

번호와 심처호를 구분한 것은 조선인들의 관념적 세계였다. 조선은 번호마저 禽獸, 夷狄이라고 인식하면서 심처호와의 완충지대로 활용했다. 하지만 번호의 침탈을 규탄하면서도 정작 심처호와의 직접 교섭은 꺼리고 군사적 대결도 회피했다. 도리어 강대한 심처호와 연대한 번호들, 그것도 특정 부락을 선정하여 공격하고 순종을 요구했다. 建州女眞이나 훌룬처럼 강대한 여진 세력의 출현이라는 현실에 눈을 감고 현상유지를 도모한 데서 조선의 대여진 정책은 허구적 면모를 드러냈다.

선조대의 정토는 번호들이 심처호에게 귀속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번리'를 복원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군사행동이었다. 압록강 일대에서는 명의 권위를 활용하여 건주여진과의 교섭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두만강 일대에서는 번리를 통해 훌룬과의 교섭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건주여진과 배후교섭

을 진행하는가 하면, 육진의 번호를 침탈하는 훌룬을 누르하치가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도 여겼다. 여진 사회의 실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고식책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待夷之道 혹은 羈縻라고 정당화했다. 결국 조선은 번리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다. 번호의 소멸과 동시에 정토·정벌 등 대여진 강경책은 자취를 감추고, 守城 중심의 방어전략 및 건주여진·훌룬과의 고식적 교섭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선조대의 정토가 번호를 威服시킨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진사회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이 글에서 주장하듯이 선조대의 정토가 158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1605년 건퇴 부락 공격에 이르기까지 대략 20여 년 간 여진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조선은 건주여진과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교섭했고, 훌룬과의 접촉도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이전보다 많은 여진 관련 첩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 '번호규례'에 입각한 심처호와의 새로운 관계는 -비록 그것이 '기미'라는 이름으로 교섭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조선이 후금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완충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조선과 후금·청의 관계 수립 과정을 '명의 질서에서 이탈'하여 '청의 질서로 편입'되는 한중관계사의 관점에서 잠시 벗어나, '여진에서 만주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흐름이 그 연속적 구도를 해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선조대 중반 이후 한동안 지속된 여진사회와의 갈등을 대여진 지배체제의 붕괴로 볼 것이 아니라 여진→만주와 관계상의 진전 -그것이 자의 혹은 타의였는지를 막론하고- 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선조대 정토의 실상을 다루면서 조선이 표방한 관념이 현실과는 괴리를 보였음을 밝히고자 했다. 선조대 번호에 대한 정토가 빈번해지고 또 여러 가지 특징이 또렷하게 관찰되는 이유는 조선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흐름에 조응한 데서 찾아야 한다. '심처호'의 경쟁적 성장과 그 여파로서 인근 부락들을 병합하는 현상이 어느새 두만강 유역에

미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은 종래의 정책을 고수하고자 했기 때문에 번호를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처호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했다. 심처호와 연대하여 조선의 변경을 공격해온 세력을 특정하여 제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정토는 결과적으로 번호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룬 이정구의 의견은 정토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정토가 치열하게 진행될 무렵, 조선 내부에서도 그 이해득실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정구가 올린 차자와 헌의는 정토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으며, 대여진 정책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겠다. 정토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문제점을 수미일관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두 편의 글은 대여진 정책의 재편이 불가피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를 소개함으로써 번호의 소멸과 함께 '정토'라는 행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건주여진·훌룬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것이 다시 후금→청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매개였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明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眉巖集』
『栗谷先生全書』
『重峯先生文集』
『簡易集』
『月沙集』
『壯襄公全書』

계승범,『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7.
金世容,「宣祖朝 尼湯介亂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김순남,「조선 中宗代의 북방 野人 驅逐」,『朝鮮時代史學報』54, 朝鮮時代史學會, 2010.
_____,「조선전기 5진 藩胡 동향의 추이」,『역사와 실학』46, 역사실학회, 2011.
김종원,『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혜안, 1999.
박정민,「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진출과 조선의 藩胡 상실」,『인문과학연구』43,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_____,「조선 중기 武將 최호의 북방 활동」,『白山學報』105, 白山學會, 2016.
_____,「임진왜란 이전 온하위의 거주지 검토」,『역사와 현실』109, 한국역사연구회, 2018.
徐炳國,『宣祖時代 女直交涉史硏究』, 敎文社, 1970.
_____,「朝鮮前期 對女眞關係史」,『國史館論叢』14, 國史編纂委員會, 1990.
이규철,「세조대 모련위 정벌의 의미와 대명인식」,『韓國史硏究』158, 韓國史硏究會, 2012.
_____,「연산군 대 대외정벌 추진 과정을 통해서 본 외교 역량의 약화」,『역사와 담론』92, 호서사학회, 2019.
이재경,「명종-선조대 압록강 방면 여진족 집단들과 조선」,『한국문화』8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장정수,「선조대 對女眞 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朝鮮時代史學報』67, 朝鮮時代史學會, 2013.
_____,「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一의 역할」,『韓國人物史硏究』25, 한국인물사연구소, 2016a.
_____,「선조대 말 여진 번호 로툰(老土)의 건주여진 귀부와 조선의 대응」,『朝鮮時代史學報』78, 朝鮮時代史學會, 2016b.
_____,「宣祖代 末 朝鮮의 對明 '虜情' 보고와 그 여파」,『明淸史硏究』51, 明淸史學會, 2019.
_____,「17세기 초 朝鮮의 이원적 對女眞 교섭과 '藩胡規例'」,『明淸史硏究』54, 明淸史學會, 2020.
崔豪鈞,「朝鮮中期 對女眞關係의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5.
한명기,『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한성주,『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_____,「조선 명종대 豆滿江 以北지역에 대한 '鎭' 설치 시도: 伊應巨島의 子母鎭 설치와 女眞과의 분쟁을 중심으로」,『韓日關係史硏究』41, 韓日關係史學會, 2012.
_____,「임진왜란 전후 女眞 藩胡의 朝鮮 침구 양상과 조선의 대응 분석」,『東洋史學硏究』132, 東洋史學會, 2015.
_____,「누르하치의 두만강 유역 번호 침탈과 조선의 대응 고찰」,『만주연구』22, 만주학회, 2016a.
_____,「조선 선조대 후반 忽剌溫 부잔타이[布占泰]의 침입 양상」,『역사와 경계』100, 부산경남사학회, 2016b.
황지영,「李成梁事件을 통해서 본 17세기 초 遼東情勢의 變化」,『朝鮮時代史學報』21, 朝鮮時代史學會, 2002.
鈴木開,『明清交替と朝鮮外交』, 刀水書房, 2021.
Adam Bohnet, Debating Tumen Valley Jurchens during the Late Sixteenth and Early Seventeenth Centuries, *Korean Studies* Vol.39,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5.
Wang, Yuanchong, Claiming Centrality in the Chinese World: Manchu-Chosŏn Relations and the Making of the Qing's "Zhongguo" Identity 1616-43, *The Chinese Historical Review* vol.22, no.2, 2015.

【Abstract】

The Reality and Skepticism on the 'Punitive Expedition' against the Jurchens in the Reign of Sŏnjo

Jang, Jung-Soo*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Punitive Expedition (征討)' as a part of policy toward nearby Jurchen tribes. The expedition itself was a tough line policy using military might, but its fundamental purpose was to restore 'pŏnli (藩籬)', a fence consisted of Boundary Jurchen (pŏnho; 藩胡) tribes to protect Chosŏn from outer Deep-Dwelling Jurchens (深處胡). Boundary Jurchens are seen in the records of the mid-16th century, but they became extinguished in the early 17th century when most of them were subjugated by the Jianzhou Jurchens (建州女眞). The expeditions were launched mostly around the late 16th century, during the reign of Sŏnjo, to prevent these changes and maintain the status quo.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the skepticism on the expedition, especially on its effectiveness. Yi Jŏnggu (李廷龜) is one of the ministers who articulated against the expedition, and his arguments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ality and the oughtness. Through his eyes, we can find a transitional link where Chosŏn policy toward Jurchen tribes transforming into interstate policy toward the Later Jin and the Qing.

Keywords: Yi Jŏnggu (李廷龜), Punitive Expedition (征討), Boundary Jurchens (pŏnho; 藩胡), Jurchens at the Foot of the Fortification (城底野人), Deep-Dwelling Jurchens (深處胡), Lotūn (老土), Hūlun (忽剌溫), P'unggye Village (豐界部落).

접수일: 2021.12.31. ‖ 심사일: 2022.01.11. ‖ 게재확정일: 2022.02.15.